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7. 4. 제18권 제2호, pp. 125~154.
http://dx.doi.org/10.19049.JSPED.2017.18.2.07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김 만 인* · **최 성 규****
대구대학교 ·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 정도, 놀이 실상 및 제약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바람직한 밤 활동 지원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청각장애 성인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밤 활동 시 행동반경이 좁고 밤에 대한 감상의 향유가 깊지는 않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놀이 실상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내적 요인은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으며, 외적 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과보호(또는 기숙사 생활의 엄격한 밤 활동 규제), 밤 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부재, 밤 활동을 유인할 환경적 요인 부족,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청인과 함께 하는 밤 활동 프로그램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밤 활동, 의사소통, 청각장애인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mmmik@hanmail.net)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skchoi@daegu.ac.kr)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다가올 미래 인간의 밤 활동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지금껏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놀이, 스포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전개될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아마도 밤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낮과 밤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간다. 현대인의 각양각색의 개성과 지구촌의 범세계화로 인해 밤을 휴식 차원뿐 아니라 생산적, 경제적 측면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성인사회의 전유물에 해당됐던 밤 활동 무대에 이제는 청소년들도 새로운 밤문화를 창출하며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조차도 밤낮의 시간적 구애 없이 24시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김만인, 2016). 이것은 밤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의 초래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세상은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밤에 대한 인식, 즉 밤에 대한 고정관념인 것이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볼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밤의 시각적 제한은 청인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각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인에 비해 밤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김만인, 2013). 밤 활동의 어려움의 원인을 청각장애인의 정서와 연관시켜 볼 때 김만인(2013)에 의하면, 첫째 청각장애인은 왜곡된 청각정보로 인하여 정서경험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크고, 둘째 정서인식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은 본인 자신의 정서 명명화(Swinkels & Guiliano, 1995)가 어려우며, 셋째 부모 입장에서 언어적으로 아동의 정서경험을 재구성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밤은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정서를 확장시키는 환경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밤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밤에 의해 다양한 정서를 확장하며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김만인, 2013). 인간이 느끼는 밤의 정서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7-8세가 되면 동시발생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10-11세가 되면 동시적이면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이해한다(윤혜정, 1995). 이것은 10-11세부터 밤에 대한 정서를 다양하게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전의 어린 아동들은 보통 귀신이나 유령, 도깨비 같은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김미경 외, 2007)처럼, 처음에는 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의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자라지만, 10-11세 이후에는 다양한

www.kci.go.kr

정서경험과 정서적 성장을 통해서 밤에 대해 동시적이며 긍정적인 정서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만인, 2013). 그리고 정서와 관련된 두뇌영역은 사춘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학령기 때의 정서 능력이 평생 갖추게 될 정서 성향의 틀(windows of opportunity)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Goleman, 1995). 이것은 10세 이후의 학령기에서 사춘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성장에 어려움이 따르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부정적 정서가 고착화되지 않고, 긍정적 정서로 전환, 확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루의 절반밖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밤 활동은 사회성 발달과 직결된다. 밤에 대한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 밤 활동을 기피하거나, 또는 수동적,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창시절에는 동료들과 오전에서 오후까지 학교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밤 활동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 활동은 불가피하다. 또한 밤 활동 시간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임정란, 2001) 현대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밤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밤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은 청각장애인이 성인이 되어서 보다 큰 사회에서의 성공을 준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최성규, 2010). 이제 낮뿐만 아니라 밤도 교육의 장으로 창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밤 활동을 더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또 일부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밤 활동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밤 활동의 어려움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밤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 정도, 놀이 실상 및 밤 활동 제약 요인 등을 규명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밤 활동 지원 방안과 밤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놀이 실상은 어떠한가?

www.kci.go.kr

셋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제약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대학생(남) 1인, 청각장애 대학원생(여) 1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성인(남) 1인, 총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질적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을 경험 정도에 따라 크게 3 부류로 분류하여,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 중간 그룹,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청각장애 성인의 밤 활동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밤 활동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각 그룹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성인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초 조사

구분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
청력	좌:110dB 우:105dB	좌:95dB 우:95dB	좌:95dB 우:100dB
장애발생시기	2세	4세	1세
성별	남	여	남
연령	58세	32세	22세
학력	고졸	대학원재	대재
결혼	기혼	미혼	미혼
직업	제화제조 기능공	대학원생	대학생
부모	청인	청인	청각장애인
언어능력	수어 사용	구화・수어 사용	구화・수어 사용

2. 연구 절차

1) 면담 질문지 작성

www.kci.go.kr

본 연구에서의 “밤 활동”은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밤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후 9시 이후 집(또는 기숙사) 밖에서의 활동을 말하며, “밤 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오후 9시 이후부터 1시간 이상 집(또는 기숙사) 밖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2013, 김만인). 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밤 활동 경험의 근거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각장애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질문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본 연구에 부합하는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면담을 실시할 때는, “밤 9시 이후부터”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질적 연구로서의 자유로운 응답을 제한하기 보다는 보다 폭넓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 이후의 시간을 밤 활동 시간으로 제시하여 진행하였다.

2) 면담 질문지(연구 문제) 구성 내용 및 상호관련성

반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과 달리 개방적인 면담 질문지와 면담 시 다양한 추가적인 질문들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반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지만, 개방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수집할 수 있다(권순우, 권순복, 2006)는 것이다.

면담 질문지 구성 내용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면담 질문지 주요 구성 내용

문항 번호	연구 문제	내용 제시	제시 목적
1-1	밤 활동 경험 정도 및 성향	지금까지 살면서 귀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은 어떠한 밤이었나요?	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와 밤 활동 경험 정도 및 밤 성향 파악
1a	밤 활동 경험 정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용감하다는 말을 ~ 밤이 두려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대한 부정적 경험 파악
1b	밤 활동 경험 정도	어두운 밤을 달콤하고 아름답게 ~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밤에 대한 긍정적 경험 파악
2	밤 활동 놀이 실상	밤에 친구를 만나서 놀이나 스포츠 ~ 폐가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밤에 야외에서 하는 놀이나 스포츠 경험유무 파악
3	밤 활동 제약 요인	어렸을 때는 누구나 밤을 무서워하지만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밤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요인들 파악
4	밤 활동 지원 인식	오늘날의 현대인은 낮뿐만 아니라 ~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 활동 지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www.kci.go.kr

고려해야 할 것은 면담 질문지에서 내용 제시를 각각의 연구 문제에 맞게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연구 문제들 간의 밀접한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인하여 개방적인 질의응답이 해당 연구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연구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의 여부도 동시에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문제별 개별 분석과 상호 관련된 연구 문제 또는 연구 문제 전체의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해석하였다. 일례로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의 내용 제시를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나머지 다른 연구 문제들과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 중간 그룹,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등으로 구분하였다.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의 밤 활동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하며,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은 밤 활동 경험이 1년에 한 번 정도이거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중간 단계의 밤 활동 경험 정도를 중간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 연구에서 인용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과 청소년기 시절의 학교생활을 근거로 하여 각 그룹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성인 3명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청각장애 성인의 밤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한 대상자들을 연구자가 개별 접촉을 통하여 물색하였고, 물색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동참 의사를 밝힌 대상자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조용환, 2003). 연구 참여자는 부가장애가 없는 청각장애 성인(남 2명, 여 1명)이다.

4) 면담 장소 선정

경상북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면담 장소로 연구소나 교수 연구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택을 면담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면담을 자신의 집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연구자가 답사 후 수락, 자택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농인인 아내와 단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응접세트가 구비된 응접실이 둘이 살기에는 매우 넓고 깨끗하고 탁 트였으며 어느 연구실 못지않게 정돈되고 조용하다는 점이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마음 편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www.kci.go.kr

점이었다. 본 연구가 청각장애인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기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는 과정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의 솔직한 마음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 참여자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는 대상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대상자는 밤에 외부로 불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 편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참작하여 연구 참여자의 제안을 수락, 자택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5) 면담 실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후,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 면담 및 심층 면담 그리고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서면을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3회에서 5회에 걸쳐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질문하고 연구 참여자가 답변하며, 필요시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연구소나 교수 연구실, 경기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택에서 수어통역사 동석 하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단독 면담 시 수어, 구화, 필담 등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에는 대부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 전원 1, 2회에 걸쳐 수어통역사 동석 하에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처리는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초 조사와 개별 심층 면담, 그 외에 이메일이나 문자,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연구 목적에 따라 유목화하여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질적 연구 기법에 의하여 내용을 분류,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면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와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하는 식으로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언급할 부분은 연구 문제들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인하여 개방적인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이 해당 연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개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www.kci.go.kr

Ⅲ.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분석에 필요한 의미 있는 면담 내용을 가능한 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1. 밤 활동 경험 정도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 제시와 질문을 이용해 면담하였다.

1-1.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은 어떠한 밤이었는가에 대한 응답

A: 나이가 10살 때, 바람이 심했어요. 나무가 막 흔들리고, 밤에 내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얼음처럼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몸이 굳고, 머리털이 곤두서고…, 흔들리는 거 보고 귀신인 줄 알았죠.

B: 지금까지 특수학교에 있어서 청인 친구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청인 친구 처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저녁 먹고, 학교 교정을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놀았던 밤이 기억에 남아요.

C: 학교에서 얼마 전에 MT를 갔었는데, 첫째 날 밤에 담력테스트 놀이를 했습니다. 나는 임원으로 행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해뒀어요.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요즈음의 대학생들이 담력이 커졌는지 100%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 같아요. 3명이 한 팀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비명을 지른 회원도 있고, 움찔한 회원도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내 역할을 다 마쳤고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놀이를 하고 이를 주관 하느라 밤이 전혀 무서운 줄 모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니 그만큼 내가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기억에 남습니다.

* 임원- 학교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회 대표의 한 사람을 의미함

다음의 <내용 제시 1a>는 밤에 대한 두려움, 즉 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내용 제시 1a> 제가 어렸을 때는 용감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겁쟁이라는 말을 듣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www.kci.go.kr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친구 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목길을 보았는데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희한하게 다른 길은 잘 보였는데 유독 그 길만 어두워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골목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골목길은 너무 어두워서 끝이 안 보였고 가다가 뭔가 불쑥 튀어나와 나를 덮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내 갈 길을 갔습니다. 가면서 겁먹은 나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그 길을 가볼까 하다가 어차피 그 길은 내가 가는 방향도 아닌데 다음에 가지라며 내 갈 길을 재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밤을 유독 좋아했던 어느 작가가 쓴 책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작가는 칠흑 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섰을 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밤을 좋아해서 밤 탐험을 즐겨했다는 그도 밤이 두려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1a-1. 밤 활동 시 밤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때 느껴보았는가에 대한 응답

A: 밤에 아무도 없는데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니까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B: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 중에 어느 날 룸메이트가 MT 가고 없어서 혼자 있게 되었는데 때마침 폭풍같은 비가 오고 번개 칠 때, 창문에 비치는 그림자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엄마한테 무섭다고 문자 넣었더니, 엄마가 괜찮다 이불 뒤집어쓰고 자면 된다 무섭지 않다 괜찮다고 답장이 와서 안심되어서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C: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할머니가 사는 시골집에 갔었어요. 컴컴한 밤에 화장실이 급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냥 참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없고 한기가 있고 불쾌한 장소라면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느낌 가져요.

1a-2. 또 그러한 두려움을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응답

A: 너무 무서워서 나무토막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나이 들어 용기가 생겨서 성인이 되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같이 예전과 같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환경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B: 엄마에게 무섭다고 문자 보내니까, 괜찮으니 이불 뒤집어쓰고 자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www.kci.go.kr

C: 첫 번째는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조명등을 가져와서 어둠을 밝히고 가거나, 사람을 불러서 가거나,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내용 제시 1b>는 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내용 제시 1b> 어두운 밤을 달콤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한 낮보다는 어두운 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1b-1. 어두운 밤이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응답

A: 있었죠. 밤에 한번은, 25살 때, 연애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연인이 그리운 생각에 두려움 다 잊고 사랑의 힘으로, 조명 있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연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B: 청인 친구 처음 만나 학교에서 데이트할 때….

C: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불꽃놀이 구경할 때 밤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바빠서 밤에 집에서 혼자 쉴 때 밤이 달콤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연애는 해보지 않았고, 데이트는 밤에는 해본 적 없고 낮에는 해본 적 있어요.

1b-2. 낮보다 밤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있다면 어느 때 느껴보았는가에 대한 응답

A: 20살 이후 젊었을 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함께 나이트클럽 가서 즐겁게 놀 때 밤에 자유 느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밤 활동 줄어들고 외롭죠.

B: 친구와 어울리면서 놀 때, 가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친구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놀고, 대화할 때….

C: 낮에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밤에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자유롭다고 느껴요. 밤에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있는 것이 좋아요.

이상이 밤 활동 경험 정도와 관련된 면담결과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대체로 다양한 밤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B와 C는 가장 활동적인

www.kci.go.kr

시기인 젊은 세대로서, 그리고 청인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생활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다양한 밤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밤 활동을 하지 않았던 연구 참여자 A조차 20세 이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즐기며, 카페에서 데이트를 한 것을 보면 청각장애인들 역시 청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밤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밤 활동 놀이 실상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놀이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제시와 함께 질문을 이용해 면담하였다.

<내용 제시 2> 밤에 친구를 만나서 놀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주로 실내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라이트조명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활동합니다. 그 외에 밤에 라이트조명 없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스포츠 활동도 있는데, 야간 산행(등산), 야간 트레킹, 캠프파이어, 폭죽, 불꽃놀이, 산책이나 조깅, 밤낚시, 별 관찰하기, 야간스쿠버다이빙, 야간자전거타기, 야간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스케이팅, 숨바꼭질놀이, 폐가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1. 평소 즐겨하는 놀이나 스포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A: 특별히 즐기는 놀이나 스포츠는 없어요. 즐겨하진 않지만 젊을 때 볼링을 쳐본 적은 있습니다.

B: 영화 관람과 산책을 즐겨요, 당구장과 노래방도 간 적 있어요.

C: 자전거 타기, 볼링 그리고 무엇보다 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즐겨합니다.

2-2. 밤에 라이트조명 없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놀이나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좋아한다면 어떤 점이 좋고, 싫어한다면 어떤 점이 싫은가에 대한 응답

A: 싫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만한 친구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같이 놀 친구 많았는데, 이사 오고 나이 들어 친구 적고 대화 없고 외롭게 지내요.

B: 싫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여름밤은 시원하고 늦은 밤까지 어둡지 않아서 좋은데, 겨울밤은 너무 어두워서 싫어요.

C: 라이트조명 없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싫습니다. 밤에는 대화 없이 하는

www.kci.go.kr

놀이는 가능하겠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는 밤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어두운 곳에서는 대화 없이 그냥 지나치고 불빛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친구와 대화하며 쉽니다.

2-3. 밤에 야외에서 하는 놀이나 스포츠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해봤는가, 그때 느낌은 어땠는가에 대한 응답

A: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직장이나 일 때문에 경험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전거타고 사고 당한 이후로는 잘 안타요.

B: MT 때는 캠프파이어, 학교 축제 때는 불꽃놀이를 구경한 적 있어요.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산책은 혼자 하진 않고 밤마다 가족(특히 엄마)과 같이 산책하거나, 친구와 같이 산책하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C: 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으로 자전거로 라이딩한 적 있어요. 시원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갑자기 옆으로 싹싹 지나갈 때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항상 뒤를 보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상이 밤 활동 놀이 실상과 관련된 면담결과이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는 볼링과 자전거 타기, 연구 참여자 B의 경우는 영화 관람, 당구장, 노래방,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구경, 그리고 산책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자 C의 경우는 자전거 타기, 볼링, PC방에서 컴퓨터게임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 모두 밤에 라이트조명 없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놀이나 스포츠들을 대체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밤 활동 제약 요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제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제시와 함께 질문을 이용해 면담하였다.

<내용 제시 3> 어렸을 때는 누구나 밤을 무서워하지만, 나이가 들어 밤에 익숙해지고 밤 활동을 많이 경험하면서 점점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밤을 극복하는 과정이 청인의 경우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밤을 극복하는 과정이 청인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6개 학교의 고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청인보다

www.kci.go.kr

대부분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자의 1/3정도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와 학교의 교사들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1시간 이상 집밖에 나간 적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1년에 한번 정도라고 응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밤 활동을 하는데 청인의 경우는 밤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하면 되었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더하여 그만큼 밤 활동을 더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도 밤 활동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밤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모님의 지나친 통제나 과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1.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한 응답

A: 맞습니다. 밤 활동은 낮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밤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실내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혼자는 못 다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사 오고, 친구 적고, 대화 없고, 외롭지요. 아내랑 단둘이 지냅니다. 나이가 들어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요. 근데 요즈음은 가로등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좁은 길은 못 가더라도 넓은 길은 충분히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B: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대부분 실내에서만 활동했어요. 엄마가 밤에는 위험하다고 절대 혼자 내보내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나가지 말라고 해서 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갈 때는 엄마랑 같이 나가죠. 그래서 두렵거나 무서운 느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시골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무섭지만, 요즈음은 불이 많아서 무서운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밤이 무섭기보다는 위험한 것 같아요. TV에 성폭행 등….

C: 혼자보다 여럿이 놀면서 밤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냈고, 별로 밤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가끔 가족과 집 근처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중학교 때에는 엄격해서 밤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사감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가끔은 학교 근처 편의점 같은 데서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하며 밤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보면 대개 자존감이 낮고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밤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를 본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밤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혼자는 잘 안 나가요. 누군가랑 같이 나가야 하는데 같이 놀 친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요. 밤에 나가면 PC방 같은데 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밖에 나가서 놀 친구가 없고, 두 번째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게임에 집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보호가 지나치기 때문에 밤에 활동 못하게 집에 가만히 있게 하는 경우도

www.kci.go.kr

있어요, 또 혼자서는 무조건 밤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생인데도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저의 친구 중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무서워해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저도 아주 조금은 믿는 편이에요, 귀신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영화는 절대 안 봅니다,

※ 연구 참여자 A, B 역시 알아본 결과 공포영화는 "절대"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3-2. 실제로 귀하도 지금까지 밤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었는가에 대한 응답

A: 밤에 자전거 타면 참 위험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 3년 전 연구 참여자 A가 밤 8시 30분경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역에서 자전거 뒷바퀴를 모닝차에 치여 자신의 몸이 튕겨져 나가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모닝차 운전자의 과실로 연구 참여자 A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수술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B: 고등학교 때까지 밤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직접 태워줘서 학원을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버스로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밤 활동이 많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무섭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밤이 무섭다기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TV보면 여자 혼자 밖에 나가서 성폭행에 살인까지 당하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나도 당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불안감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밤에 혼자 나가면 혹시 누가 날 해코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같은 거요,

C: 소리가 안 들려서 밤에는 장애물을 나도 모르게 마주칠 때가 있고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일단 수어로 대화가 잘 안되니까 불편해요, 어렸을 때는 나도 밤을 무서워하였지만 지금은 성인이 돼서 괜찮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럿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학생 때 밤에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지나가요, 내 앞을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www.kci.go.kr

아침 새벽에 혼자 머리 감으려고 일어났는데, 잠깐 다른 일하다 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볼일 보다 딱 보니까 누워있던 룸메이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감고 다시 내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딱 보니깐 없어졌던 룸메이트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때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놀라요, 밤에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무서워서 깜짝 놀라요, 그런 때 귀신이 왔다는 생각을 해요,

3-3.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응답

A: 밤이 두려운 것은 학생 때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한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밤에 조심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밤에는 밖에서 놀지 않으려 합니다,

B: 어쩌다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면 밤늦게까지 있지 않고 바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오고 나서 저절로 없어진 것 같아요,

C: 실외에서 활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조명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인은 밤에 나뭇잎소리, 바람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둠과 소리로 무서울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소리 없는 어둠, 또 무언가 앞에서 움직이고 흔들리는 어둠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휴대폰이나 전등 빛을 비추어서 물체를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니까요,

3-4. 현재는 밤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A: 현재는 사회 환경이 무서워져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살인, 납치, 강도,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청인은 소리 듣고 똑바로 걷지만, 농인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풍선이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갈지자로 걸어요, 밤에 저를 뒤따라오신 적 있다면 이해할 겁니다, 나이든 농인들이 많이 그래요,

B: 나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와서 지금까지 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같이 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대화할 때 소통의 어려움은 있어요, 또 시골길은 불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워요,

C: 주황색 빛을 발산하는 가로등 덕분에 조금이나마 보이는 실루엣, 손의 움직임으로 소통가능하나, 더 깊은 소통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합니다, 요즈음 도시에는 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시골과 같은 곳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www.kci.go.kr

이상이 밤 활동 제약 요인과 관련된 면담결과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밤에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으며,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밤은 빛이 많아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으나 시골과 같은 곳의 밤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특징으로는 연구 참여자 A는 나이가 들어 평형감각의 기능 저하로 밤에 똑바로 걷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연구 참여자 B는 어릴 때부터 밤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밤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위험성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구 참여자 C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으로서 익숙지 않은 다양한 밤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밤 활동 지원 인식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지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제시와 함께 질문을 이용해 면담하였다.

<내용 제시 4> 오늘날의 현대인은 낮뿐만 아니라 밤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갈수록 밤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 낙후되지 않게 청각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야외에서도 마음껏 밤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밤은 낮에 비해 감성이 발달하여 인간관계를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야외에서 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함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A: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집안에만 억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발전, 사회발전으로 행복한 삶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밤 활동의 두려움 극복이 필요합니다. 극복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밤 활동 많아지면 농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농인은 밤에 야외에서 노는 방법 없어요. 기껏해야 불빛 아래서 친구랑 대화하거나, 손뼉치기 하거나, 줄넘기 놀이하는 거 외에는 정말 없었던 거 같아요. 청인과 농인 간에 서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밤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C: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활동하고 싶어요. 빛이 없어 불편한 것은 맞지만

www.kci.go.kr

밤 활동하고 싶어요. 밤 활동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는 밤에 특별히 놀만한 것이 없어요. 친구와 밖에서 불빛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농인들이 밤에 논다면 주로 실내에서 합니다.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4-2. 밤에 하는 건전한 놀이 문화가 청각장애인에게 대인관계 형성이나 정서함양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A: 네,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실패한 경험 서로 위로하고, 즐거운 놀이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는 시간 갖는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B: 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인은 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문화가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인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청인과 함께 해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C: 네, 특히 MT, 교회 야외예배, 캠핑 등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인이 배드민턴 치는 걸 봤는데 내가 배드민턴 같이 칠 수 있다면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건전한 놀이는 서로 간에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밤에도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놀이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농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고, 함께 스포츠 하는 것도 좋지만, 청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밤에 스포츠나 놀이 프로그램 만들 때 청인들과 같이 하는 것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이 밤 활동 지원 인식과 관련된 면담결과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밤 활동 지원에 대해 한결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주제별로 기술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문제들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이 서로 다른 연구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는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www.kci.go.kr

Ⅳ. 논 의

1. 밤 활동 경험 정도에 대한 논의

선행 연구는 밤 활동 경험의 정도를 단순히 경험의 빈도수(횟수)에 비중을 두고 파악한 양적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경험의 다양성과 경험의 폭, 깊이를 가지고 파악한 질적 연구로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크게 경험의 다양성, 경험의 폭(행동반경), 경험의 깊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밤 활동 경험 정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경험의 다양성은 청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 전반(밤 활동 놀이 실상, 밤 활동 제약 요인 등)에 걸쳐 밤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험의 폭과 깊이에서는 청인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불빛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즉, 소통할 수 없는 어두운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밤 활동 시 청인보다 행동반경의 폭이 좁다(2-2 B, C, 3-1 A, 3-2 C, 3-3 C, 3-4 B, C, 4-1 B, C).

둘째, 밤에 혼자 다니거나, 외부에 혼자 놓여 있게 되는 상황을 매우 싫어한다. 대부분 혼자가 아닌 친구나 가족과 같이 늘 누군가와 함께 행동한다. 즉, 청각장애인에게 밤은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할 만한 그런 감상의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다(1a-1 B, C, 2-3 B, 3-1 A, B, C, 3-2 B, C, 3-3 C, 3-4 B).

예를 들면, 성숙한 성인의 경우는 혼자서도 마음 편히 밤을 만끽하고 향유하며 밤에 쉽게 동화할 수 있지만, 밤을 두려워하는 부정적 성향을 가진 미성숙한 아이의 경우는 밤에 혼자 남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있을지도 모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걱정하게 되어, 빨리 혼자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아이는 밤을 만끽할 만큼의 성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밤에 혼자 다니거나, 외부에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밤 활동 경험 정도(깊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인과 미성숙한 아이의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밤 활동 경험 정도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은 밤 활동에 대한 경험의 다양성은 청인과 비슷하지만, 경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밤 활동 제약 요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활동 범위가

www.kci.go.kr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미리 설정해 놓은 다음, 이들 경험의 빈도수(횟수)를 가지고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청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경험의 다양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깊이로써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경험의 빈도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혼자 하는 밤 활동"이었다. 즉,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혼자 하는 밤 활동"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성인 역시 혼자 하는 밤 활동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와 관련하면 청각장애 성인 역시 건청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의 빈도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양적인 경험의 빈도수)와 본 연구(질적인 경험의 폭과 깊이)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밤 활동 경험 정도에 있어서, 경험의 다양성은 청인과 유사하지만 경험의 빈도수와 경험의 폭과 깊이, 즉 경험의 양과 질은 청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 밤 활동 놀이 실상에 대한 논의

밤에 하는 놀이나 스포츠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PC방, 볼링장, 당구장, 영화관, 노래방 등을 애용하나 이는 모두 실내에서 하는 경우이고, 조명 없이 야외에서 애용하는 것으로는 자전거 타기나 요즘 젊은이의 경우는 인라인스케이팅 등이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나 인라인스케이팅의 경우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인에게도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연구 참여자들의 밤 활동 놀이도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가장 밤 활동이 활발한 연구 참여자 B를 살펴보기로 하자. 연구 참여자 B가 경험한 밤 활동 놀이 중 실내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면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산책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MT 때 캠프파이어, 학교 축제 때 불꽃놀이 구경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학교나 학과 단체 행사로써, 개인적인 취향으로 즐기는 놀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밤 활동 놀이로써 연구 참여자 B는 유일하게 산책을 즐긴다고 할 수 있는데, 산책은 <내용 제시 2>에 언급한 놀이나 스포츠 중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고, 혼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밤 활동 놀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4-1(밤 활동 지원 인식)의 진술을 보면 평소에 야외에서의 밤 활동 놀이가 거의 없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놀고 싶어도 놀 거리가 없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 C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4-1(밤 활동 지원 인식)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돌아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www.kci.go.kr

놀이나 스포츠는 청인을 위한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야외에서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에 맞는 놀이나 스포츠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놀이의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간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든 타의든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의 근원적 지향점인 심성함양(김병하, 2014)을 도외시한 오늘날의 편향된 교육의 무관심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밤 활동 제약 요인에 대한 논의

밤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요인은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적 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과보호(또는 기숙사생활의 엄격한 밤 활동 규제), 밤 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부재, 밤 활동을 유인할 환경적 요인 부족,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내적 요인

(1) 밤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누구나 어려서는 밤을 무서워하는 부정적 성향을 나타내지만 나이가 들어 밤 활동 경험이 늘어나면서 점차 부정적 성향이 긍정적 성향으로 바뀐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더해 긍정적 성향으로의 전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부정적 성향이 고착화될 경우 밤 활동을 거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나중에는 귀신의 존재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3-1 C). 젊어서는 대체로 흥미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공포영화를 즐겨보곤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모두는 공포영화는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밤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냈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잠재되어 있다(Freud, 1917)는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낸 사람의 경우는 밤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제 3자 입장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청인에 비해 밤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또 존재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에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정체 모를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다(1-1 A, 1a-1 B, 3-3 C). 청인의 경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생명체의 움직임은 대부분

www.kci.go.kr

소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물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도 똑같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림자의 흔들림에도. 불빛 사이에 걸쳐있는 검은 나뭇잎의 흔들림, 창문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의 움직임, 땅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움직임이나 흔들림 등은 그것의 정체를 모를 경우, 언제든 청각장애인에게는 두려움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예고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다(3-2 C). 청인의 경우는 사람이 나타날 때나 사라질 때 음성이나 인기척을 듣고 미리 알아채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예고 없이 나타나고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청각장애인이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또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가 눈앞에 나타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낯선 사람뿐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현상이 벌어질 때 느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이런 일을 가끔씩 겪는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조금 전까지 눈앞에 있었던 사람이 잠깐 딴청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에도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낮에도 놀라지만 밤에는 더욱 두렵고 놀라서 귀신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2) 의사소통(소통)의 어려움

청각장애인의 소통의 어려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 간 소통의 어려움(2-2 C, 3-2 C, 3-4 B, C)과 사물 간 소통의 어려움(2-3 A, C, 3-2 C, 3-3 C)이다.

① 인간 간 소통의 어려움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대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밝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걸어가면서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음성을 사용하는 청인은 앞을 보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며 걸어갈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옆 사람과 수어를 나누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걸어갈 때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즉 정지된 상태에서 주로 대화를 나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곳이 의사소통할 만큼 충분히 밝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주의집중하면서 의사소통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의 대화는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www.kci.go.kr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은 대부분 밝은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청인의 경우 걸어갈 때, 앉아있을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등 관계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낮과 밤, 실내와 야외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 조건에 의하여 밤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사물 간 소통의 어려움

청각장애인이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 특히 자동차 사고의 경우가 사물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청력손실이 91dB 이상인 농인도 경음기 소리나 오토바이의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경음기로 청각장애인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은 자장가 소리로 잠드는 아기를 깨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밤에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어두운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청각장애인은 밤에는 어두운 곳을 피해서 불빛이 환한 곳으로 다니기 때문이며, 둘째, 어두운 곳을 택했다면 뒤에서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너무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밤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가로등이 환히 빛나는, 보도블록이 없는 편도 또는 왕복 1차로의 길, 즉 자동차 한두 대만이 통과할 수 있고 좌우로 한 사람씩 보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수백 미터 이상 길게 뻗쳐진 길을 청각장애인이 걸어갈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청각장애인이 앞서 걸어갈 때 뒤에서 비추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가로등 불빛에 겹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식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길은 대체로 낮에는 보행자가 많아서 운전자가 주의를 하지만 인적이 드문 밤에는 그만큼 부주의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은 정신 차리고 걷지 않으면 십중팔구 사고 나기 십상이다. 보행 중 반드시 중간중간 뒤를 살피는 것이 최선이다.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 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또 하나, 청각장애인의 특정 세대에 한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50대 이후의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밤 활동 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3-4 A).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청력의 기능뿐 아니라 평형감각의 기능도 저하되어 밤에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지자로 걷게 된다. 그만큼 밤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2) 외적 요인

(1)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과보호(또는 기숙사 생활의 엄격한 밤 활동 규제)

이는 학령기에서 청소년기까지에 해당하는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

www.kci.go.kr

참여자 A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연구 참여자 B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다녔고, 연구 참여자 C는 초등학교는 집에서, 중·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A는 기숙사에서의 엄격한 규율로 밤에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밤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3-1 A). 연구 참여자 B는 부모님, 특히 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혼자서는 밤 활동을 하지 못하게 통제를 받았으나, 다행이 전업주부인 엄마와 함께 어릴 때부터 밤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였다고 했다(3-1 B, 3-2 B). 연구 참여자 C는 부모가 농인이라서 초등학교 때는 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냈으며, 별로 밤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가끔 가족과 집 근처로 산책을 하였다고 한다. 기숙사 생활은 중학교 때에는 엄격해서 밤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사감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가끔은 학교 근처 편의점 같은 데서 친구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밤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3-1 C). 이상과 같이 청각장애인들은 집에서는 부모의 과보호로, 기숙사에서는 엄격한 규율로 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왔음을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특히 연구 참여자 B, C)은 전형적인 사례와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에 이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연구 참여자 A는 이 그룹에 속한 전형적인 사례이기에 추후 「밤 활동 지원 인식에 대한 논의」에서 더 거론하기로 하겠다.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연구 참여자 B는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다. 과보호 속에서 자란 청각장애인들은 대개 부모에 대한 의존심이 강하고, 부모가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집안에만 있게 하여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의 생활상을 직접 목격한 연구 참여자 C의 진술(3-1 C)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이영진, 2008). 그런데 연구 참여자 B의 경우는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도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연구 참여자 B와 함께 밤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자주 밤에 산책을 하였고, 또 미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 끝나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서 청인과 다름없이 밤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직접 차로 학원에 데려다 주었으며, 중 · 고등학교 때는 학원차를 이용해 다녔다고 하였다(2-3 B, 3-2 B). 어려서부터 가족 또는 엄마와 함께 밤 활동을 많이 한 덕택에, 어릴 때 갖게 되는 밤을 두려워하는 부정적 성향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부모의 과보호로 혼자 밤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특별히 밤이 무섭다는 느낌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

중간 그룹에 속해 있었던 연구 참여자 C는 부모가 농인인 청각장애인이다. 부모가 농인인 경우는 대개 부모도 밤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확률이 높고, 또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밤 경험에 대한 언어적 재구성이나 정서 명명화에 직 · 간접적

www.kci.go.kr

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농인인 청각장애인(DCDP)이 부모가 건청인인 청각장애인(DCHP)보다 밤 활동 기피 성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다(김만인, 2013). 그런데 연구 참여자 C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때 엄격한 기숙사생활 가운데서도 사감의 허락을 받아 학교 밖에서 밤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비록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야식을 먹는 아주 사소한 행위였지만 규율이나 환경에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자 하는 자신의 자유 의지를 발현하여 밤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부모의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 기피 성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은 확률의 문제일 뿐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발현한다면 누구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 C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연구 참여자 B와 C를 비교해 보면, 연구 참여자 C가 청소년기까지도 연구 참여자 B에 비해 밤 활동을 적게 하였고,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도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밤 활동에 대한 적응에 더 많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차 사회인이 돼서는 혼자서도 능히 거리낌 없이 밤 활동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2) 밤 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부재

밤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동료가 없다는 것이다(2-2 A, 3-1 A, C). 청각장애인은 밤에는 특히 혼자 다니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함께 할 동료가 없으면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장 밤 활동을 활발히 한 연구 참여자 B의 경우도 혼자는 밤 활동을 하지 않았고, C의 경우도 밤에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다닐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1 C의 진술을 보면, 밤 활동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함께 밖에 나가서 놀 친구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C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가 밤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지 않으면 밤에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아야만 밤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다. 결국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상, 청각장애인은 친구를 쉽게 접할 수 없으면 밤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들이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3) 밤 활동을 유인할 환경적 요인 부족

밤에 동료와 함께 나선다고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활동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다(3-1 C). 연구 참여자 B의 야외 활동을 보면 지금까지 불빛이 있는 곳에서 대화하거나, 손뼉치기를 하거나, 줄넘기 놀이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4-1 B), 연구참여자 C의 경우도 자전거 타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끼리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 노는 것 구경하는 정도라고 하였다(4-1 C). 밤에는 대부분 PC방이나 볼링장 같은 밝은 실내에서 활동하고, 야외에서는 특별한 활동거리가 없을뿐더러 의사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밤 활동을 유인할 놀 거리 제공이라 하겠다. 이것은 앞서 언급(밤 활동 놀이 실상에 대한 논의)한 내용과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논의의 취지는 다르지 않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것은 집에서 목적지(놀 장소)까지에 이르는 경유지이다. 밤에 밖에서 놀거나 활동할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유지(차도 없는 길, 차도 있는 길, 야외)(김만인, 2013) 요소요소에 밤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널려 있다면 청각장애인은 쉽게 집을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한편 청각장애 성인의 경우 활동적일수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청각장애인이 청인보다 훨씬 더 악조건 하에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운전면허증에 집착하는 남다른 이유는 여러 장애물이 놓여있는 경유지를 몸소 부딪치지 않고 건너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각장애인은 평소 활동(특히 밤 활동) 시, 경유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 거리 제공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유지에 놓여있는 장해요인들을 파악, 이를 제거 또는 개선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

밤에 야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청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2-3 A, 3-2 C)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 온갖 범죄의 희생양(3-1 B, 3-2 B, 3-4 A)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밤 활동을 제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상 위와 같은 요인들이 밤 활등을 제약하는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요인은 일견 각각 별개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겠으나, 고찰하면 하나의 원인에 의한 다양한 징후에 불과하다. 밤 활동을 제약하는 외적 요인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했고, 또 변해 가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 중에 이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밤은 위험하다. 밤은 어둠의 자식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다.” 세상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에 오늘날까지도 이 말은 유효하다.

www.kci.go.kr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그러한 밤에 울타리를 쳐 놓고 사회적 약자나 선량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고 불량한 사람은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사회는 차별 울타리 쳐진 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 오늘날의 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위에 열거한 외적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과보호, 동료의 부재,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외적 요인들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사회화 주관자로서 학교(양재근 외, 2008)가 선구적으로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밤 활동 지원 인식에 대한 논의

밤 활동 지원 인식에 관련해서, 연구 참여자 A는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밤 활동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피력하였다(4-1 A). 연구 참여자 B는 밤 활동 많아지면 농인들에게 그만큼 유익하겠지만, 실제로 농인은 밤에 야외에서 놀거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인과 함께 하는 놀이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4-1 B). 연구 참여자 C는 밤 활동하고 싶지만, 밤 활동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밤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밤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4-1 C).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각각 밤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밤 활동 지원이 대인관계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데 모두 적극 동의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써,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청인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A, B, C).

한편, 연구 결과 전체를 검토하면서 특히 연구자의 주의를 끈 것이 있었다. 청소년기에 밤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A의 진술로써 연구 결과 전반에 걸쳐 "외롭다"(1b-2 A, 2-2 A, 3-1 A)는 말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점이었다. 여기서 연구 참여자 A의 진술에 근거하여 그의 삶을 한번 추적해보자.

> 4-1에 대한 응답으로 "옛날에는 집안에만 억압되어 있었지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말은 연구 참여자 A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아마도 주변 친구들의 삶을 대변하는 말일 것이다, 시대 상황에 비추어보면 연구 참여자 A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식이 장애인인 것을 하나의 큰 치부로 여겨 부모들은 이를 숨기고 살아왔던 시기이다, 연구 참여자 A의 말을 빌리면, 그 당시 친구들은 집안에만 억압되어 살아왔고 연구 참여자 A는 기숙사에만 억압되어 살아왔다, 따라서 친구들은

www.kci.go.kr

연구 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청소년기까지 밤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밤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되어 친구들 모두 각자의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이 계속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 밤 활동은 불가피하다. 처음 몇 년 간은 밤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좌충우돌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만나서 밤 활동을 하겠지만, 호기심이 충족되고 나면 친구들 중 밤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리더가 없는 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들의 성향대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사, 결혼 등 외적인 변화는 응집력이 약해진 친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여, 결국 나이가 들면 제각기 흩어져 각자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상이 친구들과 연구 참여자 A의 삶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밤 활동 하나만을 가지고 삶을 추적한 지나치게 편협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밤 활동을 사회성 발달과 연관시켜 보면 연구 참여자 A가 느끼는 외로움, 즉 고립감(Erikson, 1963)은 결코 우연으로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실제로 친구들 대부분이 연구 참여자 A와 같은 삶을 현재 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계속해서 연구 참여자 A의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 친구가 적어 외로운 이유를 하나는 “이사(2-2 A, 3-1 A)”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밤 활동이 줄어들어서(1b-2 A)”라고 하였다. 수어표현의 특성상, “밤 활동 줄어들고 외롭죠”라고 흔히 사용하는 단순 나열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앞의 진술 내용과 연관시켜보면 “밤 활동 줄어들고 그래서 외롭다”는 내용으로 결국, “밤 활동이 줄어들어서 외롭다”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사”는 단순히 친구와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지만, “밤 활동이 줄어들어서”라는 말은 친구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단절, 즉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내포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밤 활동 하나만으로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일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밤 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밤 활동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밤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학령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집단 간 삶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www.kci.go.kr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밤 활동 경험 정도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은 밤 활동에 대한 경험의 다양성은 청인과 유사하지만, 경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청각장애인은 밤 활동 시 행동반경이 좁고, 밤에 대한 감상의 향유가 깊지 못하다.

둘째, 밤 활동 놀이 실상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놀이는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야외에서 즐기는 기존의 모든 놀이나 스포츠는 청인을 위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놀이나 스포츠는 매우 제한적이다. 밤에 야외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놀이나 스포츠는 전무하다.

셋째, 밤 활동 제약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적 요인은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적 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과보호(또는 기숙사생활의 엄격한 밤 활동 규제), 밤 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부재, 밤 활동을 유인할 환경적 요인 부족,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밤 활동 지원 인식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 밤 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함께 청각장애인과 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적 프로그램도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각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밤 활동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기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낮에는 이성이 발달하고, 밤에는 감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감성은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달과 별이 빛나는 밤, 청각장애인도 이를 만끽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낮뿐만 아니라 밤도 교육의 장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50대 이후의 청각장애인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평형감각의 기능도 저하되어 밤에는 똑바로 걷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밤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www.kci.go.kr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3인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밤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인용한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과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가 유일하며, 이 외에는 지금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발견된 바가 없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뿐 아니라 밤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에 다방면의 많은 후속 연구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순우, 권순복 (2006). 청각장애인의 대학원 생활과 직장생활 적응 환경에 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2), 115-131.

김만인 (2013).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의 인식과 경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만인 (2016).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의 인식과 경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85-115.

김미경, 이상훈, 윤점룡, 서은정, 윤치연, 문장원 (2007).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김병하 (2014). **사람이 하늘**. 경산: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이영진 (2008).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임정란 (2001). 한국 사회에서의 밤시간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윤혜정 (1995).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양재근, 김우성 (2008). **스포츠와 사회환경**. 서울: 레인보우북스.

조용환 (2003).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최성규 (2010).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 1-21.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Freud, S. (1917).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서석연 옮김 (2003). **정신분석학 입문**. 서울: 범우사.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21,* 934-949.

www.kci.go.kr

The Qualitative Research on Night Activities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Kim, Man-in · Choi, Sung-kyu
Daegu University ·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experience extent, the present playing conditions, limiting factors of night activities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providing measures for appropriate support of night activities and original data required to develop night activities program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ith individual and in-depth interviews was utilized for this study. Three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earing impaired generally took part in various night activities, but did narrow range of activities and didn't take deep enjoyment in night. Second, night playing activities of the hearing impaired were mostly performed indoor, not outdoor. Third, the main factors to limit night activities of the hearing impaired were largely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is study. Fear of night,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were determined as internal factors and excessive control or protection of the parents(or tight restrictions of night activities in a dormitory), no playmate to do night playing activities together, lack of environmental resources to trigger night activities, the outdoor environmental risks were determined as external ones to limit night activities of them. Fourth, the hearing impaired's cognition about support of night activities was very positive, and revealed that they needed to develop night activities programs for the hearing and the hearing impaired together as well as for the hearing impaired.

Key Words : Communication, night activities, the hearing impaired

논문 접수: 2017. 03. 05 심사 시작: 2017. 03. 10 게재 확정: 2017. 04. 13

www.kci.go.kr